

■ 2026 새해설계 윤종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 의장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 상생 노사관계 정착”



제2·3 광주형 일자리 모델 조성·기업 유치 목표 광주공공배달앱 활성화·사회공헌활동 등 앞장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현재보다 한 단계 끌어올려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노사민정과 함께 힘을 모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노동운동을 펼쳐가겠다”며 “관행을 탈피한 새로운 노동조합의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올해 핵심

과제로 노사민정 협력체계의 고도화를 제시했다.

지역공동체와 노동계, 경영계가 함께 주도하는 제2·제3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업 유치를 통해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광주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상생을 위한 실천 과제로 추진된다.

지난해 1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

재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상생 서비스 확산에 나선다.

양 기관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위해 광주공공배달앱 활성화 홍보와 이용 장려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공정한 배달 문화 확산을 위한 환송 배달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한국노총은 정부를 상대로 임금체불 일발백계 원칙에 따른 엄중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임금채권 소멸시효 상향 등을 촉구하며 관리·감독 정상화에 힘을 보태 계획이다.

윤 의장은 “최고경영자의 고의적 자산

유출과 사익 편취에 대해 정부의 임금체불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악의적 범죄 행위에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인도적 자원과 사회공헌 활동도 확대한다.

지난해 7월 사단법인 광주공동체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봉사과 사회공헌 활동, 광주 정신의 국제화,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공동 사업과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 존중 사회 실현과 안전 한ilter 조성을 올해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실질적인 임금

인상,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에 나서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65세 정년 연장 실현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해 노동자가 출퇴근 이후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일터 조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윤 의장은 “탄압과 위협 속에서도 더 크고 넓은 노동의 세상을 향해 걸어왔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노동자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책임감과 비전, 긴 안목으로 노동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다음 세대 가 더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닦겠다”고 덧붙였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박셀바이오, 고형암 치료제로 세계시장 공략한다

‘VCB-1203’ 일본 특허 등록...글로벌 기술이전·공동개발 가속

항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박셀바이오가 일본에서 핵심 CAR-T 치료제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셀바이오는 면역관문 단백질 PD-L1을 표적으로 하는 CAR-T(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 ‘VCB-1203’에 대해 일본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국내 등록에 이은 해외 주요 시장에서의 권리 확보로, 항PD-L1 CAR-T 치료제 원천기술의 비임상 효능

·안전성·안정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된다.

VCB-1203은 불응성·재발성 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등 다양한 고형암을 대상으로 개발 중인 CAR-T 치료제다. 기존 아벨루마브(Avelumab)과 아테졸리주맵(Atezolizumab) 유래 CAR-T 대비 암세포 결합력은 유지하면서도 결합 후 해리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으로, 암세포 살상력은 장기간 유지하면서 정상세포 독성은 최소화한 것으로 비임상 시험에서 입증됐다.

박셀바이오는 현재 PD-L1 표적에 EphA2 표적을 추가한 이중표적 CAR-T 기반 차세대 고형암 치료제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해당 다중표적 CAR-T 치료제 개발 과정은 지난 2024년 6월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지난해 9월 국립암센터 과제로 연이어 선정되며 기술력과 연구 방향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했다.

지식재산권 측면에서도 글로벌 확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박셀바이오는 일본과 호주 등 해외에서 CAR-T 및 NK 세포치료제 관련 특허를 확보하며 아시아·오세아니아 권역을 아우르는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를

단계적으로 구축 중이다. 현재 보유한 총 17건의 특허 가운데 4건이 국제 특허로, 향후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의 기술이전, 공동개발, 라이선스 아웃 협상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중 박셀바이오 대표는 “이번 일본 특허 등록은 VCB-1203을 포함한 당사의 고형암 CAR-T 플랫폼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라며 “해외 특허 확보를 발판으로 고형암 CAR-T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과 기술이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주 ‘썩썩마’

고용24 오픈API로 명단공개...구직자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를 민간 취업플랫폼과 연동해 제공, 구직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고용24’ 오픈 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개방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지난 13일 기준 606명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민간 취업포털 등은 채용 공고에 해당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

동·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취업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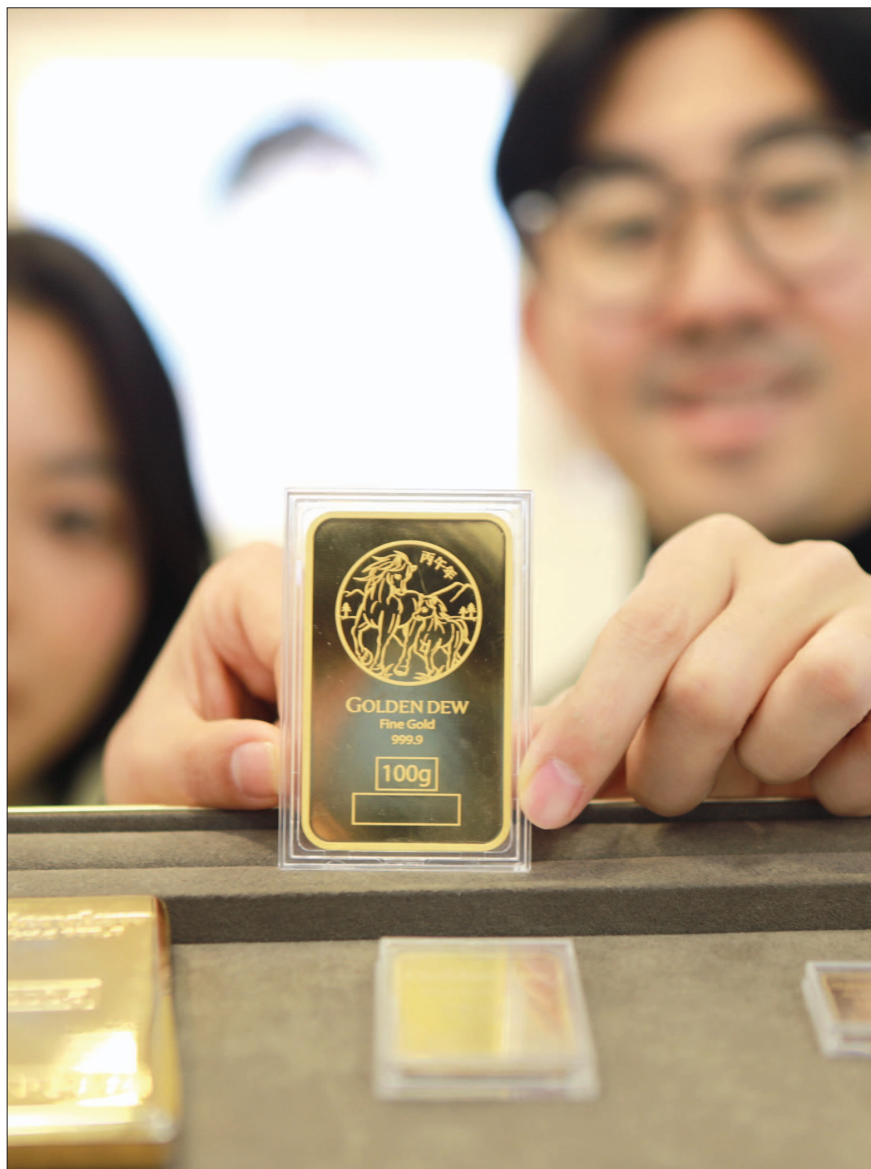
그동안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텍스트 형태로 게시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민간 취업플랫폼 역시 단순히 노동부 누리집 링크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쳤다.

오픈API 개방으로 해당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면서 민간 플랫폼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민간 취업포털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해, 해당 기업이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 화면에서 임금체불 여부를 직접 표시하는 것이 가능해져 구직자들은 보다 안전한 일자리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붉은 말의 해’ 골드바 출시 롯데백화점 광주점 2층 골드두에서 2026년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을 맞이해 ‘말 골드바’를 출시했다. 열정의 기운을 품은 해인 병오년을 기념해 제작된 말 골드바는 24K 순금이며 100g / 37.5g 두가지 중량으로 만나볼 수 있다. 골드바 구매 시 100g 당 롯데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하는 시은행사도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www.global-dh.com

다 글로벌